보다나은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23243405753!
해양수산부	배포 일시	<b>2018. 10. 24.(수)</b> <b>총 9</b> 매(본문 3, 참고 6)	72.7
담당 부서 해양개발과	담 당 자	·과장 오행록, 팀장 신선호, 사무관 ↔ (044) 200-6181, 6182, 6184	기경환, 주무관 김정희
보도일시		10월 25일(목) 석간부터 보도하·방송·인터넷은 10. 25.(목) 06:0	

# 아라온호가 찾아낸 북극항로 '난코스'실마리

##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북극항해에서 동시베리아해 해빙 관측 성공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연구항해를 통해 동시베리아해에서 발생하는 바다얼음, 해빙(海氷)의 이상 움직임을 규명할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이 녹으면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열려 향후 본격적인 상업운항이 기대되는 바닷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가는 경우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수에즈운하를 통과했을 때보다 거리가 32% 단축(22,000km→15,000km)되어 열흘 빠르게 갈 수 있어(40일→30일) 물류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극항로를 지나는 선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인 해 빙은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후 4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태평양에서 북극항로를 드나드는 관문인 동시베리아해에서는 다른 북극해역과 달리 해빙들이 모여드는 특이한 현상이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시베리아해는 북극항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 해역에 대한 접근의 제약 때문에 현장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Ocean Engineering '18.4월호 논문(호주 타스마니아대 연구팀), High North News '18.6.28일 기사(East Siberian Sea Most Dangerous for Arctic Shipping) 등

우리나라 유일의 쇄빙연구선으로 2009년 건조 이후 지속적인 북극연구항해에 나서고 있는 아라온호는 올해 연구항해(7.19~10.1)에서 작년동시베리아해 결빙해역 수중에 설치했던 장기해양계류시스템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장기해양계류시스템은 해류계, 퇴적물포집기, 동물플랑크톤-어류 음향탐지기 등 연구장비들을 일렬로 연결해 해수면으로부터 최대 1km까지 해류의 방향과 속도, 수온 등 환경변수를 관측하는 장비로, 바다속에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 설치 후 손상되거나 읽어버리기 쉬워 연구자들은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성공으로 지난 1년 동안 이 해역의 물리, 화학적 변화가 기록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북극항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마리를 푸는데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연구팀은 2015년 장기해양계류시스템을 처음 설치하여 2016년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해빙상황 악화로 회수 및 재설치에 실패

해빙의 이상 움직임 분석에 나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 구소 연구팀(수석연구원 강성호 박사)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바닷물, 러시아 육상의 담수 등 세 방향에서 유입되는 물의 흐름 변화가 해류 순환에 영향을 주어 동시베리아해에 해빙이 모여드는 현상이 발생하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연구팀은 동시베리아해에 대한 관측과 정밀한 분석을 지속해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아라온호를 활용한 국제협력 연구를 확대해 북극해 수산자원 보존,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공동현안 해결에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아라온호의 북극연구는 해수부의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및 활용연구'\*와 '북극해 해저자원환경 탐사 및 해저메탄방출현상 연 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사업기간) '16년~'20년, (총사업비) 196억원 / \*\* (사업기간) '16년~'20년, (총사업비) 14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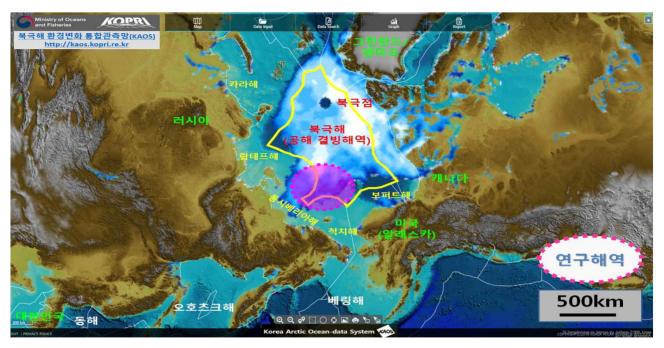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개발과장은 "북극 해빙의 감소는 이상기후로 인류에 위협을 주는 것과 동시에 북극항로 개척, 미개발자원의 발견 등 기회도 제공하는 만큼, 관련 연구를 지속 추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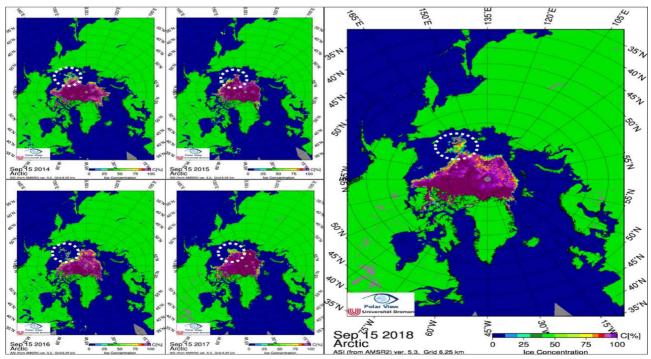
## 아라온호의 환경변화 통합관측 연구해역



출처: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망 시스템 (http://kaos.kopri.re.kr)

## 참고 2

# 최근 5년간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여름철 북극해 해빙



북극 해빙의 면적이 최소가 되는 9월에 관측된 인공위성 사진. 동시베리아해 지역(하얀 점선 원)에 해빙이 모이는 현상이 나타남 (출처: <a href="https://seaice.uni-bremen.de/sea-ice-concentration/">https://seaice.uni-bremen.de/sea-ice-concentration/</a>)

## 북극항로 사고발생률 관련 논문 및 기사

## ① 논문(Ocean Engineering '18.4월호)



Marine transportation risk assessment using Bayesian Network: Application

Al-Amin Baksh a. Rouzbeh Abbassi b. . Vikram Garaniya a. Faisal Khan a.c.

\*Australian Martiniv Gallegi (AMG, University of Tamaria, Launcatos, T85 7250, Australia \*Active of Engineering Facility of Science and Engineering Macquaria University, Sylany, NSW, Australia \*Conver for Ris, Integrity and Engineering (CASED, Facility of Engineering A Applied Science, Memorial University of Renformalisms, St. Johns, NL A18 305.

/doi.org/10.1016/j.oceaneng.2018.04.024 red 14 July 2017; Received in revised form 30 December 2017; Accepted 8 April 2018



ビナエ

sk analysis of ship collision on the NSR in extreme and normal condition.					
Regions (Sea)	Conditions	Collision probability			
	(Wind and wave effect)				
Region 1 (Chukchi)	Extreme	5.03E-03			
	Normal	1,76E-03			
Region 2 (East Siberian)	Extreme	5.02E-03			
	Normal	3.31E-03			
Region 3 (Laptev)	Extreme	5,03E-03			
	Normal	2.62E-03			
Region 4 (Kara)	Extreme	5.01E-03			
	Normal	2.21E-03			
Region 5 (Barents)	Extreme	5.01E-03			
	Normal	1.30E-03			

- 5 -

## 2 신문기사(High North News '18.6.28)

# **HIGH NORTH NEWS**

English | International | Business | Research | Politics | Culture | Opinions » | Contact us



Ice conditions are among the riskiest factors for Arctic shipping. The German research icebreaker Polarstern in the central Arctic Ocean. (Photo: Alfred-Wegener-Institut / Mario Hoppmann (CC-BY 4.0))

28/06/2018 AV KATHRIN STEPHEN

# East Siberian Sea Most Dangerous for Arctic Shipping

4

The risk for ship accidents varies across different Arctic seas. The East Siberian Sea has been found to be most the dangerous.

The East Siberian Sea has been found to have the highest risk for ship collision, sinking of ships (foundering), and ships running aground, mostly because of more severe ice conditions, such as the earlier and quicker build-up of ice at the end of summer.

Winters are very cold in that area, with the mean temperature at -30 degrees C and the entire sea covered with ice. Also, during summer, 50% of the ice cover remains, which is in stark contrast to, for example, the Barents Sea, which is completely ice-free during the summer.

Furthermore, the East Siberian Sea is the shallowest of the seas along the Northern Sea Route, with a mean depth of just 52 meters. On top comes a harsh environment, remote areas, and unexplored maritime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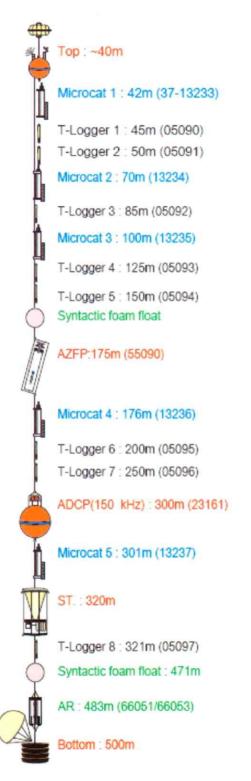
### Less risk in the Barents Sea

In contrast, the Barents Sea has the lowest probability regarding ship collision and foundering events. However, foundering probabilities are very low in all five areas. The Chukchi, Laptev, Kara, and Barents Seas have almost similar probabilities regarding grounding. The authors also find that overall, accidents on the NSR are rather seldom in comparison to other maritime regions.

http://www.highnorthnews.com/east-siberian-sea-most-dangerous-for-arctic-shipping/

## 참고 4

## │ 북극해 장기해양계류시스템 및 주요장비



연구장비를 강철케이블로 연결 후, 강철 추에 매달아 연구지역 해저에 설치하며 1~2년 주기로 회수·정비 및 재설치



동물플랑크톤-어류 음향탐사기(AZFP):
중대형 동물플랑크톤과 어류의 수직 분포를
측정하는 음향장비로, 해빙하부의 해양
생태계 정보를 연속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



o 해류계(ADCP): 해수의 속도와 방향을 도플러효과 현상을 이용해 연속적으로 관측하는 연구장비로, 해당 해역의 해수 흐름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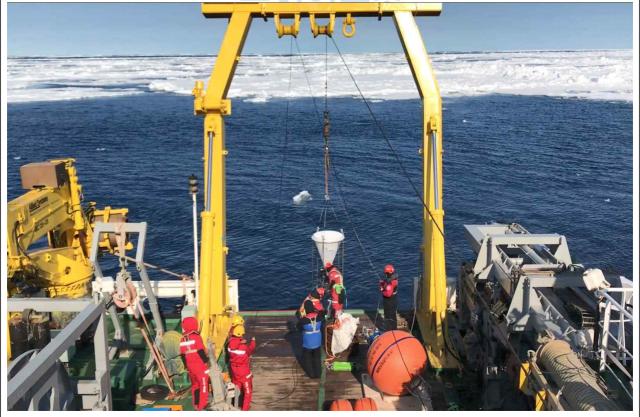
 퇴적물 포집기(Sediment Trap): 해양 표층에서 떨어지는 입자성 물질을 장기간 포집, 샘플링 하는 연구장비로, 해양의 탄소 순환 및 환경변화 연구에 활용

# 참고 5

# 이라온호의 북극 연구항해



아라온호의 결빙해역 연구활동 모식도



동시베리아 결빙해역 장비를 회수하는 모습('18.8월)



동시베리아해 결빙해역을 쇄빙하면서 항해 중인 아라온호



해빙변화 측정을 위해 장비 설치하는 연구원